

# 작은 꽃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 주요 날짜:

- 12 월 3 일  
선교의 수호자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대축일
- 12 월 8 일  
성모의 원죄 없으신  
영태 대축일
- 12 월 11 일 성서모임
- 12 월 25 일  
예수 성탄 대축일  
월례회

## 다음쪽:

월례회

유 신부님 방문

성서모임

이달의 작은 사람



##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

송 문현 베드로, SFO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가진 이들을 선망한다고 하던가? 나는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장 부러워 한다. 그래서 학술적인 논문이 아닌 개인적인 글을 부탁 받으면, 곤혹스러워 하며 할 수 있는 한 미루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는 수 없이 막차를 타곤 한다. 한때 나는 글을 잘 못 쓰는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 그때 얻은 결론중 하나는 ‘선천적으로’ 한 순간의 느낌을 제대로 잡아내 구체화 시키기에 나의 감성이 너무 무딘 탓이고, 또 다른 ‘후천적인’ 이유는 아마 그 동안의 내 삶이 너무나 평범했던 것 이리라. 그동안 나는 인생에 관해 고민하고 진지하게 삶을 돌아보기 보다는, 현실 속에서 생존하고 새로운 목표를 쟁취하는 생활, 어쩌면 삶의 질보다 양에 치우쳐 살아왔다는 게 좀 더 솔직한 설명일 듯 싶다.

그나마 성격이라도 느긋하면 쉬어가기도하고, 돌아가기도 하련만... 워낙 조급한 성격이다보니 지나보면 아무일도 아니거나 천천히 해도 될 일을 요란을 떨며 하느라고 나 자신도 피곤하고 주위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한 것 같다. 한참 지난 후에 "적당히 또는 천천히 해도 될 것을..." 하고 후회도 여러 번 했지만, 막상 또 새로운 일이 닥치면 또 정신없이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설쳐대곤 한다. 그래서 한때는 이러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몸쓸병이라도 걸리지 않을까 고민한 적도 있는데 다행히 건강하게 지내는 편이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두고 ‘멧돼지 형’ 성격 이라고들 한다. 멧돼지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며 달려가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나마 멧돼지처럼 단순하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때때로 나는 우리 프란치스코 영성 중의 하나인 ‘단순성’의 부족을 절감하곤 한다. 사실 그 많은 영성들이 다 부족하지만 내 경우엔 ‘단순성’이 제일 부족하고 또한 시급히 계발토록 노력해야 될 덕목인것 같다.

내가 자신 없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피정등의 모임에서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인데 물론 말재주가 없기도 하지만 돌려 생각해 보면 이는 그동안 하느님의 보살핌 안에서 별 풍파 없이 지내왔다는 뜻도 되어 스스로 위안하곤 한다. 나는 가끔 우리 삶을 지뢰밭에 비유하곤 한다. 바닷가 모래밭을 걷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위험한 지뢰밭 삶을 통과하지만 그저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것이 큰 행복이고 하느님의 축복이 아닌가 싶다.

언젠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평범하고 사소한 것이 가장 큰 행복이란 것을 깨달을 기회를 주신 적이 있다. 몇 년전 연말 건강진단 결과 ‘암일 확률이 20~30% 정도’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 한 달간 정밀검사를 받고 결국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단조롭지만 평범하고 사소한 삶’이 가장 귀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후반에 야곱이 파라오에게 한 말을 되새기며 평범한 삶을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떠돌기 벌써 백삼십년이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으나, 살아온 나날이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소인의 조상들이 떠돌아 다니시며 누리신 수에 미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  
San Diego, CA 92111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whan  
@yahoo.com



마음을 모아

## 월례회

지난달 23 일 새로 평의회가 구성된 후 첫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Mark 수사님께서 당일의 복음말씀(마태 22:34-40)을 주제로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사랑의 계명에 관한 토의를 이끌어 주셨고, 새로 양성봉사자로 선출되신 오 바오로 형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한국 천주교 역사에 관하여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걸음

## 유 사베리오 신부님 방문



함께 모인 이곳에...

지난 18 일 금요일 저녁에 미국 방문중이신 작은 형제회의 유 수일 사베리오 신부님께서 멀리 형제들을 찾아 San Diego 를 방문하셨습니다. 오 어거스틴 형제님 댁에서 함께 한 이 자리에서 미사를 올리며 반가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올해 환갑과 은경축일을 맞으셨다는 신부님께서 프란치스코가 되신 경위와 작은 형제로서 걸어온 삶을 형제들과 나누어 주시며, 가난의 정신과 겸손한 자세를 항상 간직하라고 부탁드립니다.

## 성서모임 - 출애굽기편

성서모임에 참석하시는 오 영훈 어거스틴 형제님의 글입니다.

“우리는 에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이였습니다.”

창세기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라면 출애굽기는 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하느님과의 관계이다. 하느님의 개입은 항상 그래왔듯이 감지할수 없을 만큼 아주 조용히 시작된다. 세상만사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느님은 모든 만사를 당신의 계획하시는 목적에 사용하신다. 상반되어 보이는 일까지도 당신이 뜻하시는 데로 오묘하게 당신 목적에 이

용하신다. 파라오와 그의 왕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의 계획에 봉사하였던 것이다. 파라오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선,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항하며 싸우는 유혹과 마귀, 자만, 시기, 질투, 아집, 욕심, 기만이며 우리 안에 존재하며 항상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생살이, 생존경쟁터인 동시에 인간을 성숙시키는 생명의 양식터이다. 야훼의 땅으로 가는 길은 이 광야를 거쳐야 한다. 이 광야에서 도망치지 않고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광야를 끝끝내 걸은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말기는 길이다.

## 이달의 작은 사람



이달의 작은 사람으로 이 은재 마리아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성모님(축일 8 월 15 일) 이 본명성인이신 자매님은 남편 이 혁종 요셉 형제님(형제님의 본명성인은 누구일까요?) 과 1963 년 5 월 5 일에 결혼하셨고 슬하에 1 녀 1 남의 자녀와 3 명의 손주를 두고 계십니다. 요셉 형제님의 선배의 인도로 1968 년 성탄에 부부가 함께 영세를 받으셨습니다. 1977 년 미국으로 이민하셔서 San Jose 에 정착하여 오래 사셨고 2003 년 San Diego 로 이사오셨습니다. 요셉 형제님의 오촌 조카가 되시는 Orange County 형제회의 이 규성 바오로 형제님의 끈질긴 권유를 받으시던 중, 작은 형제회의 김 기수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만나게 되어 시작되는 San Jose 의 재속 형제회에서 형제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역시 두분이 함께(?) 2000 년 9 월 서원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난의 영성에 제일 마음이 끌리신다는 자매님은 젊은 형제들이 많아 일꾼이 많고 모든 일이 척척 잘 진행되는 활력있는 저희 형제회의 모습이 좋다고 하십니다.